

### 고맙습니다

배움의 庭園



임효경  
완도중 교장

뜨거운 여름 태양은 광복절 지나면 좀 수그러진다는 어른들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30도를 훨씬 넘지만 조석으로는 제법 선선해 진 것을 보면 자연의 섭리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올림픽의 뜨거운 열기도 사그러들고,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왔다가 가고, 다시 또 일상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유난히 이번 여름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슬픔도 한계치가 있어서, 죽어도 자연의 섭리 일부분이지 싶어서, 덜 슬퍼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요즘입니다. 자연의 흐름과 인생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부질없는 몸부림이지요.

여름방학도 끝나고 개학을 하였습니다. 올 여름방학엔 굳이 애써서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통한 짜릿한 휴식과 재충전의 누림이 없는 방학, 내게 참 낯설었습니다. 교사들에게 방학이란, 새 학기에 교실에 돌아와 학생들에게 나눌 귀한 경험치를 쌓는 기간입니다. 연수를 하고, 여행을 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쓸 연장의 날을 갈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8월 말, 국가가 인정하는 휴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전 곧 일상이 쪽방학이 됩니다. 그래서 8월은 그냥 주변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터전 돌보는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나고 묻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할까봐 걱정만 같았습니다. 33년 교사, 3.6년 교감으로, 1.6년 교장으로, 내가 돌아보아도 참 긴 항해입니다. 그 항해를 마무리한다고 하니,

숙제를 다 끝내고 선생님의 검사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으며,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내가 부지런히 나를 일으켜 세웠고, 누구보다 학생들을 사랑했기에, 나 스스로 토닥토닥 '잠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싶습니다. 교사 생활 기록부 종합란이 있다면 이렇게 써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참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부단히 연마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사로서 교실 수업 개선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왔기에 그 노고를 인정할 만하다. 또한, 교장으로서 학교를 사랑하고, 학생들 성장을 도모하고, 교사들을 존중하며, 행복한 학교 현장 조성에 정진한 점을 높이 인정한다' 라고요.

그런데, 섬섬한 마음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며칠 전, 방학 중 근무를 마치고 홀로 완도 신지 명사십리를 찾아 맨발 걷기를 하였습니다. 낮의 해가 저물고, 저녁이 마중 나오며,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그 지점은 마치 부끄러운 만남이라도 하는 듯, 분홍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는 서쪽 땅은 황금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묘한 감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떠나야 하는구나, 이전 이 부드럽게 발을 감지럽히는 고운 모래밭길을 만나기 힘들겠구나. 문득, 슬픔이 슬슬하게 내 마음에 차 올라왔습니다. 열 개가 넘는 학교를 옮겨 다녔고, 수없이 많은 이별을 했는데, 이런 감상은 무뎠던 나에게 이 나이에 가당치 않다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서 나의 뒀안길을 받아들이자. 그냥 나의 길을 가자. 인생은 원래 이렇게 쓸쓸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를 응원해 주십니다. 국가가 나에게 애썼다고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선 교감, 교무행정사가 함께 나의 정년을 기념하는 책을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방학 내내 킁킁대며, 완도중 항해편지를 모으고, '배움의 정원' 글을 모아서, 나

의 삶을 담은 책을 편집하느라 애를 씁니다. 선배 교장 언니는 그동안 찍어 모은 사진들을 모아 동영상 편집을 하느라 또 애를 씁니다. 우리 가족들은 모두 나서서, 아내를 위로하고 엄마를 응원하는 편지를 써서 줍니다.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도 고마운 이들이 한마디씩 적어 정성스러운 롤링페이퍼를 만들어 줍니다. 20년 전 제자들이 교수가 되어, 교사가 되어 나의 교직생활이 참 보람찬 것이었음을 증언하는 편지를 써 문집에 한 페이지를 채워 줍니다. 완도중에서 1년간 함께 생활했지만, 나에게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더불어 나에게 큰 감동과 기대를 전해 준 한 아이가 감사의 편지를 보내 줍니다. 여고 친구들은 그동안 애썼다고 밥을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멋진 선물로 감동을 줍니다. 동료들도 아쉬움을 표하며, 갖은 정성을 베풀어 줍니다. 후배 교사들은 퇴임식을 준비하며, 선배 교사에게 최대한의 예를 갖추겠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큰 환대를 받아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고, 원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인 것을 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들에 감동하고, 감탄하며, 기꺼이 또박또박 받으며 감사를 보낼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새 인생을 출발하는데, 온마음이 도왔고 온학교가 나섰다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또 학교 밖으로 나가서 그동안 받은 사랑과 도움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의 미약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일조를 해 볼까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이 물러가면 가을이 다가와 초목들은 열매와 씨를 맺습니다. 자연의 순리처럼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까요? 나는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은근하게 사회에 스며들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씨알을 흘려보내, 또 다른 새롭고도 진기한 세상의 싹이 트는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임이여, 안녕.

### 원자력 발전 계속운전 필요한 이유

기고



서희  
전북대 양자시스템  
공학과 교수

파리올림픽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 지난 7월, 유럽에서 들려온 또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 이번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점점 커지는 유럽시장에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기술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반도체와 더불어 향후 15년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굳이 수출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은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발전원으로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제는 대체 에너지원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2021년 제정·2022년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 전력원은 무탄소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원전, SMR,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재생만으로 탄소중립을 하기에는 비싼 발전단가와 간헐성, 용량 대비 넓은 건설부지 확보라는 단점이 있기에 낮은 단가로 연속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이 신규 전력원에 포함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운영능력을 갖춘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현재도 국가 전력의 30%를 책임지고 있다.

물론 원자력발전도 장점만 있는 에너지원은 아니다. 대용량인 만큼 원전의 건설에는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또다른 대용량발전소인 화력발전소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추가 건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1980년대부터 운영해 오던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운영허가가 거의 만료되어 간다. 오늘날 에너지 사용량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신규 발전소의 건설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즉시 가용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세계는 지금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 계속운전이란 운영허가기간에 도달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변경허가를 받아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1970년대 말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보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세계 각국의 현황을 보면 운영허가 기한에 도달한 원전 252기 중 90%가 넘는 233기가 계속운전을 승인받아 운전하고 있다.

한빛1·2호기의 경우 각각 2025년 및 2026년에 운영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하여 규제기관에서 심사 중이며 주민의견 수렴 과정 중 주민공람을 마치고 관련 6개 지자체의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청회는 민주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이다. 한수원에서 한빛1·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개최하는 주민공청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청회의 의미 설명,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평가결과 설명, 주민 의견진술과 전문가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대상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다.

공청회 당일에도 지역주민은 서면질의가 가능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에 반영되어 규제기관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적 절차인 공청회를 통해 한수원은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도 공청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절차임을 이해하고, 검증된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는 솔기로운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자력 발전은 안전성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함은 기본이며, 소통과 이해를 위한 상호 노력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부디 원자력발전이 지역과 함께 하는 상생의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jnlibo | jinilbo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jinilbo  
 E-Mail : jebo@jinilbo.com



#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